

2025년 11월 28일 제49호

연구위원 안혜영
연구위원 서유나
연구위원 이예린

HIF 월간 산업 이슈(11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석유화학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이 쏘아올린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 롯데HD현대 케미칼은 대산 산단의 NCC 통합을 결정하고 정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 승인 완료시 정부의 인센티브 통해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체질 개선의 기반 마련할 계획
- 대산에서 양사의 첫 번째 구조조정이 공식화된 가운데 산업부도 사업재편 제출을 촉구하고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울산, 여수 산단의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

철강

위기의 철강업, 정부 고도화 방안으로 실적 개선되나

- '25.3Q 철광석, 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기업별 자구 노력으로 철강업의 수익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른 실적 차별화가 나타남
- 정부의 철강업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철강업 고도화 방안으로 '26년 고부가·저탄소 제품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나, 전기료 인상 및 비우호적 수출 환경 등 어려움도 지속

디스플레이

OLED 중심의 사업 재편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LCD 사업을 철수하고 OLED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3분기 실적이 개선
- '26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AI 확대에 따른 프리미엄 OLED 수요 및 IT 기기, 자동차 등 OLED 침투율 증가, 패널 면적 확대 등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예상

산업 이슈

석유화학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이 쏘아올린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철강

위기의 철강업, 정부 고도화 방안으로 실적 개선되나

디스플레이

OLED 중심의 사업 재편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C20. 석유화학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이 쏘아올린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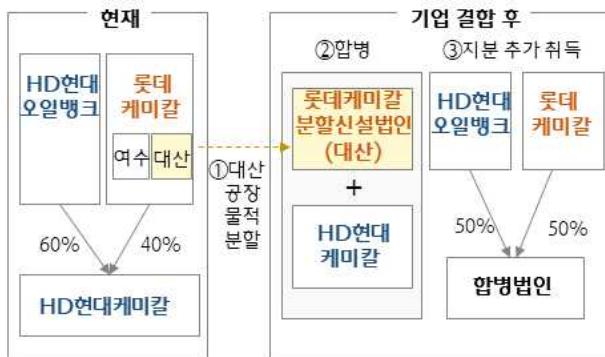
연구위원 안혜영

※ Summary :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산단 내 NCC 통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 양사는 이번 사업 재편으로 정부의 '기업합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어 금융, 세제,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적자 축소 및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대산 산단의 구조조정이 공식화된 가운데 정부도 석유화학 업계에 사업재편을 촉구하고 있어 그동안 눈치싸움으로 지지부진하던 울산, 여수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롯데케미칼 · HD현대케미칼, 대산 NCC 통합합 결정 후 정부에 승인 심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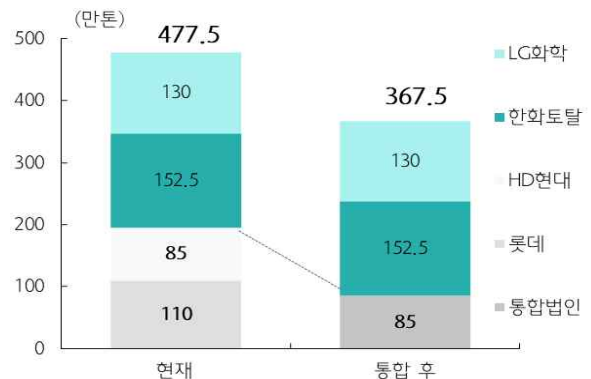
- 지난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대산 산단 내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합하는 내용의 사업 재편안을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
- 이번 재편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 후, HD 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합병법인 지분은 양사가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
- 대산 단지 내 양사의 생산능력은 195만톤 규모(롯데 110만톤, HD현대 85만톤)이나 정부의 자율적 NCC 감축 요구에 따라 통합 후 일부 NCC 가동 중단을 통해 생산 감축에 나설 전망이다
 - 양사 NCC 중 더 노후화되고 손실규모가 큰 롯데케미칼의 NCC가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
- 양사는 정부의 사업재편 승인 이후 감축 대상 설비 등 세부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며 NCC 감축 외에 고부가, 친환경 중심으로의 체질개선도 병행할 계획을 밝힘

그림1 |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 결합구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림2 | 통합 후 대산 석유화학 단지 에틸렌 생산량 변화



자료 : 한국화학협회, 하나금융연구소

■ 양사 통합으로 즉각적인 업황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위기 극복 및 체질 개선 기반 마련

- 이번 양사의 NCC 통합은 롯데케미칼의 운영비용 절감 및 재무건전성 회복과 HD현대 케미칼의 규모의 경제 및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
 - 롯데케미칼은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대산 NCC 구조조정시 수천억원의 손실 축소가 가능하다고 언급
-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 장기화로 불황의 골이 깊어진 현 상황에서 NCC 생산 감축이 즉각적인 업황 개선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11월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170달러 내외로 지난 3년 동안 손익분기점(300달러/톤)을 하회
- 다만 사업재편을 통해 정부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금융 및 세제 혜택, R&D 지원, 규제 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받을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적자 폭 축소 및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금융권도 업계의 자구노력에 따라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전망

■ 양사의 구조개편 시작으로 지지부진하던 석화 업계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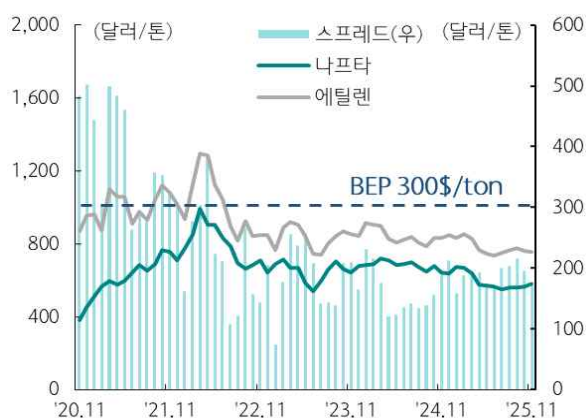
- 대산 산단에서 첫 번째 구조조정이 공식화된 가운데 산업부도 사업재편 제출을 촉구하고 있어 그동안 눈치싸움으로 지지부진하던 울산, 여수 산단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
- 현재 여수 산단에서는 LG화학·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여천NCC의 통합이 논의 중이며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스오일 등 3사가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 중
- 대산 산단 시작으로 연말까지 석화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겠지만, 단순히 기업 간 NCC 통합 및 생산 축소만으로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의 고부가 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세부 지원책 마련이 필요 

그림3 | 최근 5년 간 국내 석유화학 스프레드 추이



자료 : KOREA PDS, Value search

표1 | 정부의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 원칙 및 인센티브

지원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석화 단지 대상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 계획 마련 시 지원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 하려는 기업의 경우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
승인 기업 대상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가상각, 양도차익 관련 특례 적용 합병, 분할 관련 규제 완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원, R&D 지원, 고부가 전환 자금 지원, 설비 투자 지원, 기타 규제 완화 등

자료 : 언론자료 정리

C24. 철강

위기의 철강업, 정부 고도화 방안으로 실적 개선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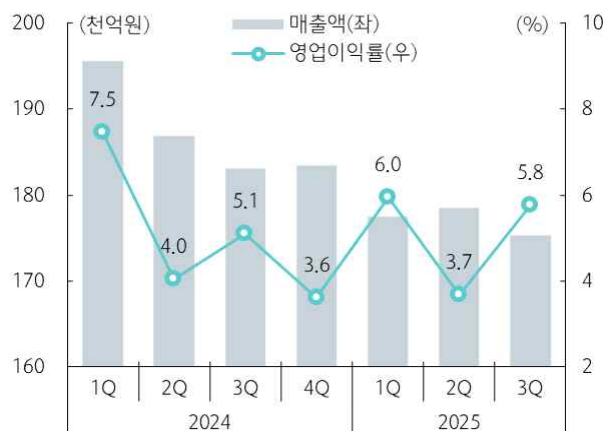
연구원 이예린

※ Summary : '25년 3분기 철광석, 원료탄 등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며 철강 산업의 수익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기업별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실적은 차별화. 품목별 시장 경쟁력에 따른 차별화된 구조조정 원칙,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사업 재편 등 정부는 철강 산업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 정부의 철강업 부양 정책에 힘입어 '26년 고부가·저탄소 제품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며 대형 철강사 위주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료 인상 및 비우호적 수출 환경 등 어려움도 지속될 전망

■ 3분기 원가 하락으로 수익성은 소폭 개선됐으나, 포트폴리오별 실적은 차별화

- 철광석, 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기업별 자구 노력으로 '25.3Q 철강업의 합산영업이익률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른 실적 차별화가 나타남
- (포스코) 주요 제품 판매 가격 하락에도 가동률과 마진(판매가격-원가) 회복으로 '25년 3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비 2%p 상승한 6.6%를 기록
- (현대제철) 영업이익은 '24년 4분기부터 적자가 이어지다 자동차용 판재 등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중 확대, 원가 하락 등으로 '25년 3분기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이 개선
- (세아제강) 건설업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50% 관세 반영으로 수출 수익성이 급락하며 '25년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17.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그림4 | 1차 철강제조업의 분기별 실적 추이



주 : 별도기준, 외감 이상 1차 철강제조업 25개사 합산 기준
자료 : Value Search

그림5 |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 철강금속신문

■ 11월 정부는 업황 회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철강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

- 업황 부진이 단순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번질 우려가 커지며 정부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범용재 구조조정, 미래 경쟁력 확보 등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
- 경쟁력이 약화된 형강, 강관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이 어려운 철근은 설비 규모 조정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는 품목별 시장 경쟁력에 따라 차별화된 구조조정 원칙을 제시
- 또한 美관세 피해 기업 대상 금융 공급 확대와 특수탄소강 R&D 지원, 철강 특화AI 모델 개발 등 기술 개발 지원도 포함되며 산업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 정부 정책으로 철강업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


- '26년 정부의 고도화 방안과 K-스틸법 등 정책 효과 가시화로 양적성장에서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며 고로 중심의 대형 철강사 위주로 수혜가 예상
 - 정부 정책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은 성장하나, 범용재 시장은 당분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
- 판재류는 불공정 수입재 대응 등 정부의 구체적 조치에 힘입어 반덤핑 관세 효과로 증대되며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후판 부문 수익성 정상화로 '26년 실적 개선이 기대
- 다만,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 美관세 유지 및 EU의 수입 규제안 등 통상 환경 악화와 투자 부담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며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특히, 美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 업체의 수익성 회복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표2 |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주요 내용

구분	세부전략	대상	주요 내용
설비 구조조정	자율조정	형강, 강관	기업 주도 설비 감축 및 M&A, 과잉 설비 폐쇄 설비 조정 공장이 있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사업 재편	철근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및 세제 지원 등 정부 주도下 감산 유도 구조조정 협의체 운영
		열연, 냉연, 아연도	수입재 침투가 높아 수입대응 선행 후, 필요시 규모 순차 조정
미래 경쟁력	고도화 투자	특수강, 전기강판	기업의 선제 투자 촉진, 특수탄소강 관련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 2,000억원 규모의 R&D 지원
금융 지원	유동성 공급	중소·중견 철강사 및 수출기업	① 수출보증: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상품 신설, 보증 금액 한도 확대, 보증 기간 연장(1년→3년), 보증료 할인(1%→0.7%) 등 ② 이차보전: 중소 2%p, 중견 1.5%p 이자 지원(1,500억원) ③ 미국 관세 피해기업 대상 긴급 융자자금 편성(200억원)
시장 보호	통상 대응 및 품질 관리	불공정 수입재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반덤핑관세 회피행위 조사 강화 품질검사증명서(MTC) 의무화를 활용한 수입 모니터링 본격화 우회덤핑 규제 대상을 제3국 조립·가공 등으로 확대

자료 : 정부 발표 자료

C262. 디스플레이

OLED 중심의 사업 재편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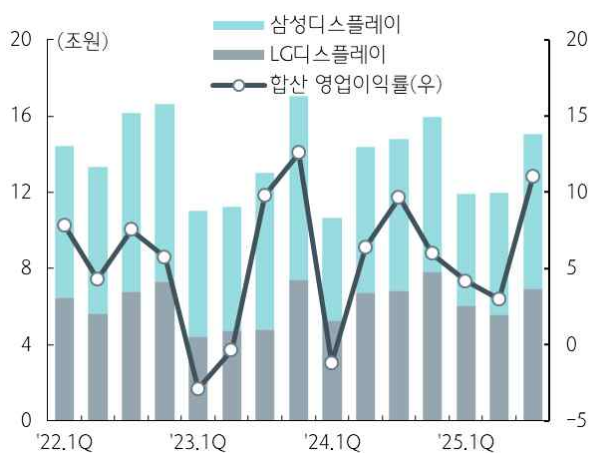
연구원 서유나

※ Summary :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대형 LCD 사업을 철수하고 OLED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25년 3분기 실적 개선. 주요 OLED 수요처 중 TV 시장은 글로벌 TV 수요 정체 등으로 TV용 OLED 패널 수요가 부진하나, 스마트폰 및 IT OLED 시장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의 OLED 전환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성장. 중국 업체들도 IT용 OLED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어 중국발 공급과잉 리스크가 상존하나, '26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OLED 침투율 증가, 패널 면적 확대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

■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OLED 중심의 사업 재편으로 '25년 3분기 실적 개선

- 최근 LG디스플레이는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대형 LCD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IT용 OLED 등 고부가 제품군에 집중해 분기별 실적을 크게 개선하는 데 성공
 -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해 '22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LGD는 약 5년간의 광저우 OLED 공장 설비투자 감가상각이 마무리되면서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
- 삼성디스플레이 또한 모바일 OLED 시장의 확고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애플 등 주요 고객사로의 신제품 패널 공급을 늘리며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을 지속
- 국내 패널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의 진입으로 가격 경쟁력이 축소된 LCD 사업을 철수하면서, 향후 OLED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실적을 좌우
 - 삼성D는 '22년, LGD는 올해 4월 광저우 LCD 공장을 CSOT(中)에 매각하며 대형 LCD 산업이 종료

그림6 |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의 영업이익 추이



자료 : Dart

그림7 |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25.1Q)



자료 : OMDIA

■ '26년 OLED 시장은 스마트폰·IT OLED 전환에 힘입어 5% 성장 전망

- '26년 글로벌 OLED 시장은 AI 확대에 따라 프리미엄 OLED 수요 및 IT 및 자동차 등 신규 시장 내 OLED 전환이 증가하면서 올해 부진을 딛고 약 5.0% 성장할 전망
 - 글로벌 OLED 시장 규모(억 달러): 428('23) → 540('24) → 535('25P) → 562('26P)
- (TV) 글로벌 TV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 LCD TV 업체들의 저가 공세까지 가중되면서 프리미엄 TV 판매가 위축되고 TV용 OLED 패널 가격 또한 하락세
 - OLED TV 수요 부진에 따른 TV 제조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단가 하락 압력이 우려
-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 제품 출시가 확대됨에 따라 LTPO 등 전력효율을 높이는 패널 기술이 애플의 아이폰 전 모델에 채택되는 등 프리미엄 OLED 시장이 성장
 - 애플은 올해 아이폰 17 시리즈부터 전 모델에 LTPS 대비 약 2~3배 비싼 LTPO를 채택
- (IT 기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등 IT 제품에서 OLED로의 전환에 따라 IT용 OLED 패널 가격 및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

■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가 있으나 OLED 침투율 상승 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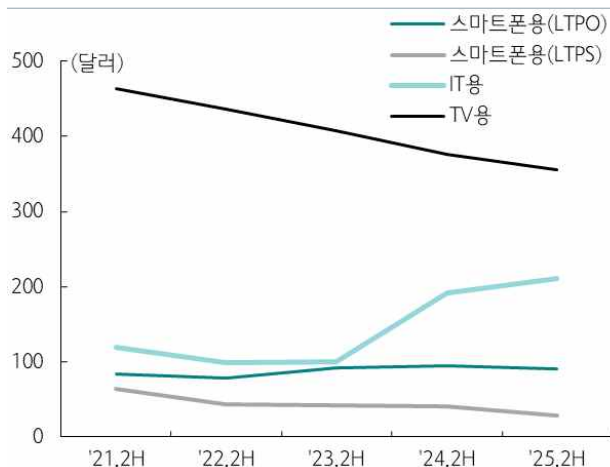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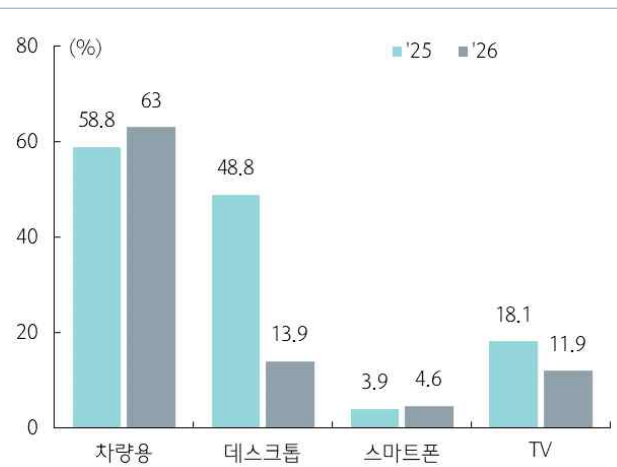
- IT용 OLED가 높은 시장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BOE, CSOT 등 중국 업체들도 8.6세대 생산라인에 투자 중으로 '28년 중국의 IT용 OLED 생산 능력이 한국을 역전할 우려
 -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 3분기 아산공장에서 월 15K(천장) 규모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BOE는 '26년 하반기 월 32K, CSOT는 '28년 월 22.5K 양산을 계획
- '26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요 시장 내 OLED 침투율 증가, 패널 면적 확대 등으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 신시장 확보가 관건
 -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폴더블, 롤러블 등 새로운 OLED 기반 폼팩터의 개화가 요구 

그림8 | 주요 OLED 패널 가격 추이



주: IT용 패널은 태블릿 기준, TV용 패널은 55인치 기준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그림9 | 수요처별 OLED 성장률 전망



주: 출하량(대수) 기준
자료: OMDIA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